

2020년 3월 8일 "(성경의 큰 숲 보기 28) 호세아: 그의 앞에서 살리라"(호 6:1-3)

<도입>

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, 자기 삶 속에서 좌절과 거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 말씀을 품고 살펴보겠습니다.

[1] 호세아의 배경

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괴한 요구를 하셨습니다.

**v.2b** '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'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.

- 이스라엘: 심판할 것이다(예후 왕가에 대한)
- 로루하마: 긍휼과 용서가 없다
- 로암미: 나의 백성이 아니다

그리고 곧 회복 또한 약속하십니다.

**1:10-2:1** 로암미 -> 암미(내 백성이다); 로루하마 -> 루하마(긍휼을 얻음)

호세아에게 이런 결혼을 시키신 이유는, 말씀하며 말리셔도 우상(탐욕과 힘의 추구)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거절과 괴로움을 주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. 호세아가 고멜로부터 당했던 배신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받으셨던 것을 상징합니다.

[2] 하나님의 심정

백성들은 풍요를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 이 경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본질은 세속적 욕망 추구이므로 진정한 여호와 예배일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은 이미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자기가 가려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속성 상 놔두십니다. 이것이 심판입니다.

이 심판은 과정 속에서 대부분 심판으로 느껴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.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르게 될 심판의 결말을 선언하시며 지금있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. 4-10 장까지는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.

- 4:5, 7, 9** -> 예언자/제사장이 수치를 당함
- 4:19** -> 우상 섬기는 이가 수치를 당함
- 8:4-6 -> 사마리아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
- 5:6** -> 더 이상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
- 5:9** -> 황폐할 것이다
- 7:16** -> 칼에 옆드려질 것이다
- 8:14; 11:6** -> 성읍은 불탈 것이다
- 10:7, 14-15** ->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, 등.

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큰 긍휼을 표현하십니다. 특별히 11 장에 잘 나타납니다.

**v.8b~9(읽음)** -> v.11b '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'

격렬한 심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다른 표현입니다. 닥칠 심판의 결말은 바꿀 수 없는 확정된 미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선지자는 하나님 심정으로 대언합니다.

본문 말씀은 주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입니다. **v.2b-3** "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. 우리가 주님을 알자.."

**[3] 약속하시는 새 삶**

14 장은 회개할 때 약속하시는 새 삶의 회복을 말씀합니다.

**14:2~3**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살려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또 특이한 고백은 '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.'

이 고백의 뜻은 강자가 자기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며, 오히려 주님이 더 좋은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. 또한 주님께 돌아가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세속적/제국적 방식(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악한 면)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. 이 세상의 가치와는 upside down 하겠다는 것입니다.

다른 선지자에서와 같이 호세아서에서도 **14:4~8** 절을 보면 주님의 새 일을 내다보게 합니다

- 주님이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임재하심
- 이스라엘이 나라꽃처럼; 백향목(나무)처럼
- 풍성한 수확과 포도나무의 꽃,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질 것
- 무성한 잣나무, 생명의 열매 등

이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. 이미 창조 때에 이루셨던 태초의 축복의 상태, 구체적으로 에덴과 같은 상태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부터 새 목표를 향한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며 당신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시는 구원을 행하십니다.

위기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? 위기와 고난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알아갈 때 자신의 마음에서 새 생명의 원기를 누리고,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.

**<맺음>**

주님을 알고 누리는 에덴의 새 생명은 다른 곳, 다른 존재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. 호세아는 창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여 원대한 주님의 목표를 향한 새로운 삶을 걷자고 말합니다. 이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.

**<나눔의 질문>** (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.)

1.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아는 것은 일회적입니까, 아니면 지속적입니까? 일회적이든, 지속적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?
2. 호세아가 느꼈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 심정 속에서도 약속하신 새 일을 볼 때 그것이 나와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?